

## 대덕밸리 4주년 기념행사 '다채'

10월 14~20일까지 '대덕밸리주간' 지정

**대** 전시는 지난 2000년 선포된 대덕밸리의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주간을 '대덕밸리 주간'으로 선정,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대덕밸리 주간에는 '대덕밸리 정보넷 시연회', '대덕밸리 벤처기업 친환경 제품설명회', '전통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신기술 협력 간담회', '대덕밸리 선포기념 대전시민 걷기대회', '유비쿼터스 전시회',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 환경구축 전략 세미나', '텔레매틱스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첫날인 14일부터 20일까지 대덕밸리 테크노마트내 멀티이벤트홀에서 미래 첨단 과학기술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비쿼터스 전시회가 진행된다. 16일에는 대덕밸리 선포 4주년 기념 시민걷기대회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연구단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또, 전통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신기술 협력을 위한 간담회가 18일 오후 2시 대덕밸리테크노마트 대화의실에서 열린다.

19일 오전 10시에 대덕밸리 1500개 기업정보가 총망라된 통합 DB 대덕정보넷시연회, 오후 2시에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친환경제품 설명회, 같은 날 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 등 3개의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이 에도 20일 오전 10시 대전대, 한밭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이 연합으로 텔레매틱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들을 통해 대덕밸리 벤처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제품 신기술

## 세야, 예비군 훈련용 M16 페인트건 개발



**대** 덕밸리 벤처기업 세야(대표 이창욱)는 예비군 훈련용 'M16 페인트건'을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에 사용되던 레저용 페인트건과 달리 조준 사격과 분해조립이 가능해 페인트건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감압시스템을 부착, 안정적인 가스압력 공급이 가능해 먼 사거리(유효사거리 30~40m, 최대 70m)를 유지할 수 있고, 유효사거리 내에서의 명중률도 85% 이상 된다.

또 잦은 기능 고장으로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펌프식 페인트건에 비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반자동 사격이 가능해 실총과 동일한 느낌으로 사격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회사측은 육군본부가 예비군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서바이벌장비 개발을 한국서바이벌게임협회에 제안한 가운데 이 제품이 협회의 각종 검사와 안전 기준을 통과, 국내 첫 공식 지정장비 및 지정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6일부터 대전국제무역전시관에서 열리는 벤처국방박람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